

## 한국 아토피 피부염에서 식품 알레르기의 특성

강민정<sup>1)\*</sup>, 권주영<sup>2)</sup>, 노건웅<sup>2)</sup>, 이상선<sup>1)</sup>.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sup>1)</sup>, 서울알레르기클리닉<sup>2)</sup>

The characteristics of food allergy in atopic dermatitis in Korea

Minjeong Kang<sup>1)\*</sup>, Juyoung Kwon<sup>2)</sup>, Geunwoong Noh<sup>2)</sup>, SangSun Lee<sup>1)</sup>.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Life Science, Department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Seoul Allergy Clinic, Seoul, Korea

최근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제는 일정 소수에 국한된 질병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유병율이 높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중의 하나로 식품 알레르기가 관련이 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빈발하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하여 외국의 보고는 많으나,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차이로 인한 생활 환경의 차이와 유전적인 차이로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성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 자료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국외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 본 연구자들은 국내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공개형 유발검사를 시행하여 호발하는 식품을 발표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이중맹검시험 및 공개형 유발검사를 시행하여 식품 알레르기의 유병율과 호발식품을 확인하였으며, 연령별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 자료를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조기 이유식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유식을 시행하는 영, 유아의 식품 알레르기를 조사하여 현 사회의 조기 이유식 자체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알레르기 특수분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성을 조사하였다.

2000년 1월 27일부터 2000년 10월 25일까지 서울 알레르기 클리닉을 내원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과거력 조사, 피부단자시험, 식품 특이 IgE 항체 검사 결과들을 기초자료로 Open food challenge (OFC) 또는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food challenge(DBPCFC)를 시행하였다. 신생아에서 콩분유와 알레르기 특수 분유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여 현 사회에서의 이유식의 문제점과 아토피 피부염의 분류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정도를 평가하였다.

한국의 아토피 피부염에서 알레르기를 호발 하는 식품은 우유(35.8%), 달걀(43%), 멸치(33.3%), 보리(31.6%), 돼지고기(31.5%), 닭고기(24.3%), 대두(23.3%), 쇠고기(21.6%), 밀(21.2%), 조기(20.2%), 배(19.4%), 치즈(16.7%), 양파(14.3%), 새우(13.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1세 미만의 영, 유아에서 이유식 도입에 따른 식품에 대한 과민반응은 우유, 달걀, 대두순으로 나타났으며, 5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에는 우유, 멸치, 보리, 대두, 돼지고기, 달걀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세 미만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 및 알레르기를 위하여 섭취하는 특수 조제 분유의 경우에 ha21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24.2%, 콩분유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34.1%를 나타내었다. 시판 이유식의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식품 중 쌀, 우유, 바나나, 오렌지, 배 등의 야채, 호박, 당근, 토마토, 쇠고기, 치즈, 흰살생선 등에 있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오렌지, 배, 치즈, 조기는 각각 20.0%, 17.6%, 15.4%, 13.8%로 높은 과민반응률을 나타냈다.

국내 아토피 피부염에서 빈발하는 알레르기 원인 식품은 외국의 결과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와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대국민 홍보, 교육을 위하여 반드시 국내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조기 이유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올바른 이유식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아토피 피부염 및 알레르기 질환의 적극적인 그리고 최소한의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